

작은 독서가 만드는 큰 변화, '문해력 성장학교' 운영

단계별 문해력 프로그램과 독서 체험 연계... 기초학습 역량 강화

광양시는 어린이들의 기초학습 역량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광양희망도서관과 광양꿈빛도서관에서 '문해력 성장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매체 이용 증가로 어린이들의 독서 시간이 줄고 문해력 저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지역 내 초등학생 1~3학년층을 대상으로 읽기·말하기·쓰기 단계별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과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을 연계해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문해력 성장학교'는 「천 권 읽기 챌린지」와 「어린이 독서클럽」, 「어린이 작가학교」, 「천 권 독서 마스터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평소 책에 흥미가 적은 어린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학부모와 어린이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 꾸준한 독서 습관 형성... 도전! '천 권 읽기 챌린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천 권 읽기 챌린지」는 씨앗·새싹·열매 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참여 어린이는 '천 권 서가' 도서를 읽은 뒤 독서 여권에 해당 도서의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면 매달이 키링, 독서 여권, 1,000권 달성 메달, 인증서 등 다양한 독서 키트가 선물로 주어진다. 또한 도서관 내 '스탬프 존'과 '말예의 전랑'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챌린지를 통해 꾸준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성취 경험을 축적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읽기에서 표현까지...독서클럽·작가학교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

문해력 성장학교는 독서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어린이 독서클럽」에서는 연령과 관심사에 맞는 도서를 선정해 독서 토론, 글쓰기, 미니 발표회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한편,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표현하고 또래와 소통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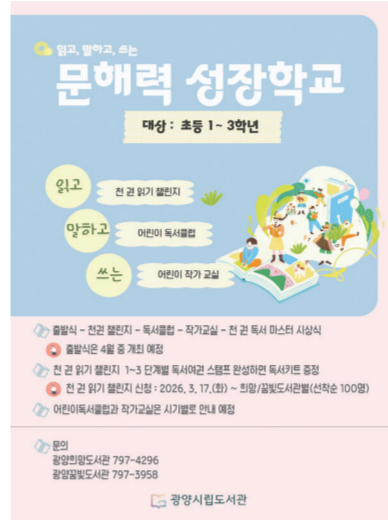
「어린이 작가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기획하고 글을 쓰는 창작 활동을 진행한다. 완성된 작품은 출판 과정을 거쳐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이해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통합적 문해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천 권 독서마스터 시상식'으로 성취감 및 동기 부여 강화

프로그램 종료 시에는 「천 권 독서 마스터 시상식」을 개최해 챌린지를 성실히 이수한 어린이에게 인증서와 메달을 수여할 계획이다.

'천 권 독서 마스터' 인증은 어린이들의 독서 성취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어린이 독서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문해력 성장학교를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를



기를 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독서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해력 성장학교 「천 권 읽기 챌린지」는 3월 17일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광양희망도서관과 광양꿈빛도서관 각각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희망도서관(☎061-797-4296), 광양꿈빛도서관(☎061-797-3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비엔날레 9월 4일 개막... 전시 준비 본격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주제... 작가 전시 구성 확정 단계 전시 핵심 키워드 변화·실천... 43개 팀 다층적 현대미술 선사 호 추 니엔 예술감독 "광주에서 변화는 바로 살아있는 역사"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9월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15일까지 72일간 펼쳐지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올해 전시 주제인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를 공개한 데 이어 참여작가 선정, 전시장 조성, 신규 작품 제작 지원 등 전시 준비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본전시 외에도 프랑스·이탈리아·브라질·스페인·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 전 세계 약 30개국 및 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광주 전역의 공공시설과 사적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예술로 변화의 가능성 탐구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화두인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로스' 마지막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등 현대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담론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실천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전시는 삶의 방식과 사회구조,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펼쳐지는 본전시에는 약 43명(팀)이 참여해 설치·영상·퍼포먼스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미세한 분자적 변화부터 개인, 사회 시스템, 나아가 우주적 변화까지 확장되는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된다.

◇ 예술감독·큐레이터 협업... '변화와 실천' 의미 조명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호 추 니엔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박가희, 브라이언 쿠안 우드, 최경화 큐레이터가 협력해 전시의 철학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Change)'와 '실천(Practice)'이다. 예술적 실천이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호 추 니엔 예술감독은 "이번 전시는 관객들이 다양한 규모와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투쟁의 역사를 지닌 도시로서 변화의 이상과 경험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 국내외 거장과 신예의 조화... 독창적 예술 실험의 장

광주비엔날레는 작가 개개인의 작업 세계와 예술적 실천과정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밀도 높은 전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는 제임스 T. 홍, 니나 카넬, 재클린 키요미 고크, 박찬경·권병준, 왕휘, 캄프, 남하연 등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국내외 작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전시 작품은 ▲전시 주제 및 기획 방향과 부합하는 기존 작품 대어 ▲전시 주제를 기반으로 한 신규 제작 작품 ▲광주역사와 장소성을 반영한 GB 커미션 작품 등을 통해 광주비엔날레만의 실험성과 독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의 특정 장소와 시민 공동체의 가치가 상호 작용하는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작품인 GB 커미션은 광주비엔날레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 도시 전체가 전시장으로...국제 교류의 허브 '파빌리온'

본전시와 더불어 광주 전역은 거대한 파빌리온 전시장으로 탈바꿈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을 비롯한 30여 개 국가 및 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은 광주지역 공공립·사립 전시관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공시설 등 약 23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파빌리온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작가 레지던시, 아트워크 등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광주의 지역문화와 자산과 글로벌 예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광주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문화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수 기자

'형태의 잠언'展, 조각으로 사유를 말하다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6월 14일까지 기획전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0일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형태의 잠언'展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각을 매개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사유해 온 방식을 조명하며, 형태를 하나의 언어로 읽어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형태는 언어 이전의 언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조각을 단순한 시각적 대상이 아닌 인간의 감각과 사유가 응축된 존재로 해석한다. 물질과 형태를 매개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며, 관람객에게 조형을 통해 사유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참여 작가들은 각기 다른 조형 언어를 통해 물질과 감각, 시간과 존재의 관계를

탐색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돌·나무·금속 등 다양한 재료는 하나의 형태로 응축되며,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본질을 드러낸다.

작품들은 짧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잠언'처럼 관람객에게 다가가며, 형태가 하나의 메시지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조각 감상을 넘어 관람객이 작품 앞에서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형태는 고정된 의미가 아닌, 빛과 시간,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낸다.

전시는 3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조각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 존재와 세계 인식의 근원을 되짚어보는 의



미있는 자리로 기대된다. 개막식에는 화순군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전시를 둘러보며 작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정석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전시는 조각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의미 있는 기획"이라며, "앞

으로도 군민과 관람객이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https://sbart.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379-3836~7)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

금이 있습니다

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